



## 지재식 위원장 신년사

**2005년 한해는 안정속에서 따뜻한 인사정책을 회사가 펼쳐야한다!**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집행부가 출범한지 2년을 넘기고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출범 직후 조직개편저지투쟁을 시작으로 개악된 인사보수규정철회투쟁, 사외이사 추천 투쟁, 사장의 고용보장 선언, 노사대토론회, 비영업부서 상품판매금지 등 굵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제가 취임할 때 밝혔던 8대 집행부의 일관된 기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를 통해 인원감축과 강제목표 시달 등으로 피폐해진 현장을 되살리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노동조합이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전투적 운동방향을 지양하고 조합원 권익을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펼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회사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KT가족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사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8대집행부 마지막 해인 2005년은 지난 2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2005년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추천과 조직개편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회사는 ‘영업경쟁력 강화 계획’이라는 문서를 통해 사실상 조직개편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을 잘못 찾아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후 방향에 대해 조합과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논의의 바탕은 2003년 조직개편 이전의 구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외이사 추천투쟁을 전개합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는 조합원이 진정한 KT의 주인으로서 거듭남을 뜻합니다. 또한 투쟁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대화와 책임을 가진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합원여러분!

노동조합은 출범초기의 마음을 다잡고 2005년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3개 실처장을 교체하는 등 중앙상집 구성을 일신했습니다. 지방본부와 지부장도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를 알고 실천하는 간부로서 각오를 다질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2005년에도 씩없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이길에 조합원여러분이 함께 있어 노동조합은 더욱 힘이 납니다.

아무쪼록 2005년 을유년도 희망 가득한 해

가 되길 바랍니다.

2005년 1월 1일

KT노동조합 위원장 지재식

### 단체보험 세부 보장수준 확정 재해·일반사망 8,000만원 지급... 업무시간 상관없이 24시간보장

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교섭시 단체보험 도입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사간 세부 보장수준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단체보험 합의사항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신.구대비표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단체보험 정의

- 회사가 사원의 불의의 재해에 대비, 재해보장 대책을 마련해 재해시 사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보장해주는 상품
- 산재보험과 다르게 업무시간/외를 불문하고 24시간 보장
- 1인당 연간 7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 □ 단체보험 가입대상

- 임직원 및 청원경찰, 전문계약직, 전직직원휴직자 : 약 38,500명(기왕증자 포함)
- 보험계약기간 : 2004.12.31 ~ 2005.12.31( 1년단위 소멸성 보장, 매년 계약 )
- 신규입사자(채용자)는 입사일(채용일) 기준 적용
- ※ 보험기간중 퇴직자는 보험 만료시점(2005.12.31)에 계약해지

#### □ 추진경위

○ 2004년 단체교섭시 노사간에 단체보험 도입 합의 : 2004.8.4

- 1인당 12만원 수준, 2005년 시행, 중복항목 폐지

○ 노사간 보장항목, 보장수준, 추진방법 등 협의 : 9~12월

○ 노사간 보장수준 등에 대한 합의 : 2004.12.28

#### □ 단체보험 가입조건

○ 재해사망(8,000만원) : 단체보험 약관(질병을 포함한 일반사망 제외) 적용

◆ 일반사망(8,00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 재해장애(최고 2,500만원) : 보험사 등급기준 적용(1등급~6등급)

◆ 1등급:2,500만원 100%, 2등급:70%, 3등급:50%, 4등급:30%, 5등급:15%, 6등급:10%

◆ 계약기간중(2004.12.31 ~ 2005.12.31) 발생한 재해(심사중인 재해 포함)에 대해서는 퇴직후에도 보상 가능

○ 암진단(1,500만원) : 계약기간중 전이에 관계없이 타부위 발생시마다 보험금 지급

◆ 아래 사항 해당시 차감지급

- **상피내암**(암이 되기 직전의 단계, 몸의 바깥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상피에는 암세포가 존재하지만 기저막까지는 침범이 되지 않은 경우, 자궁경부암/유방암 등 모든암에 적용되는 암 직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음) 10% 지급

- **경계성 암**(양성과 악성 중간단계, 예를 들어 물혹과 암의 중간단계, 5년이상 생존율이 99% / 15년 생존율이 80~90%로 오래 사는

데 별 지장은 없다고 함)는 30% 지급

◆ 기왕 암진단자가 계약기간중 전이에 관계 없이 타부위 진단시 보험금 지급

◆ 기왕 암진단자가 계약기간중 전이되어 타 부위 진단시 보험금 미지급

○ 보장항목별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금액	지급방식	추진방법	비고
재해사망	8,000만원	정액지급	단체보험 (보험사)	
재해장해	2,500만원	등급별 차등		
암진단	1,500만원	정액지급		
일반사망	8,000만원	정액지급	복지기금	

○ 기타 보험사 표준약관 및 특약사항 적용

□ 신청 및 지급

○ 신청 : 복지팀

○ 신청서류 : 보험금청구서(공통), 사망진단서, 휴유장해진단서, 암진단서 등 보험사 제시요청서류

○ 지급 : 신청후 2~10일

□ 단체보험과 중복 항목 정리

○ 단체협약 제51조(퇴직금 지급 특례) 삭제 : 퇴직 가산금이 재해, 일반사망 보장수준 초과시는 그 차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장(순직자, 공상퇴직자 해당)

○ 단체협약 제79조(재해보상) 제1항 단서 조항과 제2항 삭제(출퇴근 재해보상, 공상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위금, 인명피해 : 일부개정 및 삭제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개정

(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을 참조)

○ 제25조(지급기준) : ②항, ③항, ④항 신설

○ 제26조(지급신청) : ③항, ④항 신설

○ 제28조(재난구호금) : 문구정리((해일, 지진 삽입 및 신체적 피해 삭제(단체보험지급))

○ 제30조(지급신청 및 피해조사): 5항 삭제

○ 별표1(지급기준) : 조위금 개정, 인명피해 삭제

**노동조합 23주년 기념식**

지재식 위원장, 회사측에 징계·부당인사·체임 등에 대한 대서면 요구  
이용경사장, 경영설명회·노사대토론회·노사대표자간담회 확대 등 밝혀



노동조합 창립 23주년을 맞아 조합간부 600여명과 IT연맹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본사대강당에서 6일(오늘) 오후 2시 개최됐다.

지재식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변화는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 임금저하없는 주5일제, 사장의 고용보장선언 등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2005년은 조합원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람중시의 인사정

책을 펼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에 대해 “징계와 합리적이지 못한 인사, 체임 등에 대한 대서면과 해고자 복직 등을 실시해 가시적인 노사대화합의 의지를 보여줄 것” 을 요구했다.

축사에 나선 이용경 사장은 “기업의 변화와 도전은 당면과제이며 이는 노사화합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 며 노사 화합을 위해 “▲사장 책임기간 고용보장 재확인 ▲경영설명회·노사대토론회 확대 ▲회사의 주요사업 노조와 협의 ▲노사대표자간 간담회 현장기관까지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KTF노동조합 배효주 위원장은 “통신산업이 1세대를 넘어 2세대, 3세대, 4세대로 진화하듯 노동조합도 변화발전해야 한다” 며 “KT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진출투쟁은 첨단기업의 노동조합다운 발전된 투쟁방식” 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KT그룹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KT노동조합이 만형의 역할을 해준다면 KT그룹의 노동조합도 적극 지지할 것” 이라며 강한 연대의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우수지방본부와 우수지부 및 우수조합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우수지방본부**: 강남지방본부, 충남지방본부

▲**우수지부**: 강북지방본부 파주지부(지부장=이진구), 강남지방본부 남수원지부(지부장=신양호), 서부지방본부 금천지부(지부장=김영필), 부산지방본부 울산망운용국지부(지부장=임용식), 대구지방본부 김천지부(지부장=박명서), 본사지방본부 충남전산국지부(지부장=이재인), 전남지방본부 서광양분회(분회장=강성용), 전북지방본부 전북동부망운용국지부(지부장=황정택), 충남지방본부 대전영업국지부(지부장=서윤수), 충북지방본부 충

북영동지부(지부장=박희삼), 강원지방본부 철원지부(지부장=박희천), 제주지방본부 제주통신망지부(지부장=김형균)

▲**우수조합원**: 김정훈(강북지방본부 종량지부), 박우일(강남지방본부 가락지부), 신종진(서부지방본부 강화지부), 박승호(부산지방본부 사하지부), 정정식(대구지방본부 대구영업국지부), 이미애(본사지방본부 영남권고객센터지부), 김동욱(전남지방본부 광주망운용국지부), 강택술(전북지방본부 전북망건설국지부), 김종만(충남지방본부 홍성지부), 박헌용(충북지방본부 보은지부), 이용문(강원지방본부 강원망건설국지부), 김봉진(제주지방본부 제주지부)

## 창립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KT노동조합 창립 23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조합간부여러분 감사합니다. KT그룹 노동조합위원장님들과 이용경 사장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대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KT와 KT노동조합의 변화를 이야기 했습니다. 민영KT는 낡은 공기업 관행을 청산하고 급변하는 시장에서 기술변화를 주도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T노동조합도 이에 발맞춰 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대 집행부를 출범시키면서 노동조합이 먼저 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선교섭의 원칙을 지켜갔고 노사대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허물없는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또한 투쟁에 나설 때는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주효했습니다.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가 이뤄졌고 임금 저하없는 주5일제를 쟁취했습니다. 또한 2004년 시무식장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사장의 고용보장 선언은 조직 안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과 외에도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회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경영진들은 소위 ‘노동조합은 단순 무식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끔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경영진들은 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은 새로운 조합활동의 틀을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이를 안정시키고 굳건히 세워가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합원여러분!

2005년 올해는 조합원 안정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제적인 상품판매 압력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정책 등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2005년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어루만지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신뢰 속의 변화’도 따뜻한 경영, 사람을 중심에 둔 경영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 상처로 남아 있는 징계, 부당한 인사 등에 대한 대사면과 같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노사대화합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2003년의 조직개편 문제, 올해는 털어내겠습니다. 조직개편 후 우리의 현실은 어떨습니까? 인력의 분할손은 더욱 가중됐고 영업과 지사·망은 상호 유기적인 지원은 커녕 제살 깎아 먹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사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원점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이용경 사장님도

나와계시지만 저는 회사가 조만간 노동조합과 협의를 요청해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동조합은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참여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안에는 고용안정과 투명경영 그리고 회사의 발전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조합원이 KT의 주요 대주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외이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부정적일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는 동반자가 있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합간부여러분!

지금 8대 집행부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많은 고난과 함께 곡해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노동조합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간부여러분의 활동입니다. 또한 개개인의 활동이 아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굳건히 나아갑시다.

백범 김구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취가 뒷사람의 길잡이가 될 것이니”

2005년, KT노동조합은 여러분의 무한한 믿음과 지지로 한발한발 올곧게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3만 2천 조합원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6일

KT노동조합 위원장 지재식

## 동절기 현장 직영 작업수배시간 1시간 단축 노사협의회 개최결과 안전사고예방위해 17시까지만 수배키로

동절기 안전사고예방의 일환으로 동절기 현장 직영작업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

- 협의일시 : 2005. 1. 5 (15:00)
- 장 소 : 노동조합 중앙본부 회의실
- 협의결과
  - ◆ 근무시간 ⇒ 18:00 (종전 동일)
  - ◆ 현장 직영 작업수배시간 ⇒ 17:00 까지 (1시간 단축)
  - ◆ 동절기 적용기간 : 2005. 2. 28

##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을 위한 아침 출근선전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을 위한 아침 출근선전전을 4일 7시30분부터 전국 각 지부별로 일제히 실시했다.

교육선전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서부지방본부 안양지사 및 경기서부망운용국 지부를 방문했다.

서부지방본부 김병탁 위원장은 “이 시대 우리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투쟁은 우리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경영에 직접 참여 시키는 것”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언젠가는 반드시 쟁취해야만 할 것”라고 밝혔다.

한 조합원은 “현장에서는 고용에 불안을 느끼는 조합원들이 많다”면서 “노동조합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지켜줄 사외이사를 반드시 진출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노동조합에서는 사외이사 진출 투쟁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관심이 부족한 조합원들이 많고 오히려 회사 간부가 더 관심을 보인다”며 노동조합의 더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사외이사 진출은 조합원들의 고용보장과 투명한 경영확보를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만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을 방해하는 사측의 방해작업에 굴하지 마시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 주십시오.

1월 4일(오늘)부터 7일까지(4일간)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를 위한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노동조합에 반드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고자 3명 복직

지난 2004년 단체교섭을 통해 해고자 3명 복직에 대한 노사합의 후속조치로 노사는 1월1일자로 3명의 해고자를 복직 시켰다.

8대 집행부에서 해고자 복직은 작년 7명에 이어 올해 3명으로 총 10명이 복직됨으로써 현재 6명의 해고자가 남아있는 상태다.

노동조합은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해고자의 신분에서 조합원의 품으로 돌아온 복직동지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복직된 동지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 복직대상자

- 강세구(전 기간망 건설국 조합원)
- 김윤환(전 강북 지부장)
- 김태성(전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

**노동조합 창립23주년 기념품비 지급기준**

제23주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2005. 1.6)을 맞이하여 기념품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급대상

- 기념일 기준 기본급이 지급되는 직원, 청원경찰, 전문계약직
- 임원, 파견계약직 등은 지급제외

■ 지급금액 : 1인당 5만원

■ 지급방법 : 기념품(월드패스카드 충전 포함)

■ 지급일 : 2004. 1.6

**2005년 규약 및 규정 개정을 위한 전담반 운영**

노동조합은 2005년 규약 및 규정 개정을 위하여 지방본부에서 보고된 인원(6명)과 중앙상집(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목적 : 2005년 규약 및 규정 개정

◆ 전담팀 운영기간 : 2005.1월 10~14일(5일간)

◆ 장소 : 서당골 청소년수련원 [충북 보은군 (T)043-542-0981~5]

◆ 전담팀 명단

소속명	성명	조합직위
중앙본부	백관기	법규(산안)국장
“	박경운	재정국장
“	차완규	정책 1 국장
“	윤일성	조직 1 국장
강북지분	강재구	서울북부망운용국지부 조합원
대구지분	배우일	대구지사지부 지부장
전남지분	김재천	영암지부 지부장
본사지분	노일철	망관리지원단지부 지부장
강원지분	엄도열	횡성지부 지부장
충북지분	장철현	충북지방본부 조직국장
계	10명	

◆ 현재의 규약 및 규정에 관한 개정사항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신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전담팀 운영기간 중에도 아래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법규국 (010-6754-0070, [baek11@kt.co.kr](mailto:baek11@kt.co.kr))]

◆ 전담팀원 공지 사항

- 1) 조합조끼 착용
- 2) 규약 및 규정집 지참
- 3) 각 지방본부내 지부장 및 조합원 의견 청취하고 자료 수합할 것
- 4) 1월 10일 14:00 시까지 필히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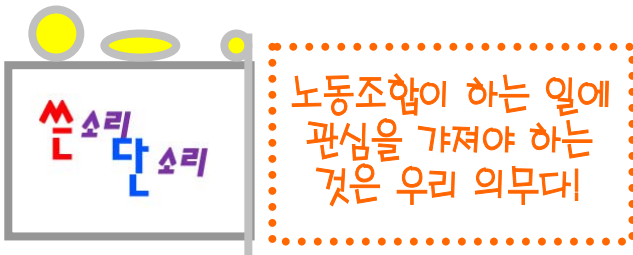
**2005년 노동조합 시무식**



중앙상집은 1월 3일 시무식을 갖고 을유년 새출발을 다짐했다.

지재식 위원장은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성급하게 집행부 임기내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지으려 할 경우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상집은 새해 덕담을 서로 나누고 2005년 한해는 더욱 열심히 일하자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시무식을 마무리 했다.



[출처 : 노동조합 게시판 2005-1-7]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져 있는 현 실정이 아쉽지만 사외이사 추진에 대한 현재 노동조합에 대해 공감을 한다.

진정으로 KT직원이라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문제는 상당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한다.

현재 추진중인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추천 투쟁 관련하여 어느 게시판이고 간에 사외이사는 회사 측 경영진의 몫이고 또한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면 오히려 더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반대 글 일색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현 노조가 어떤 다른 의도로 사외이사를 추진한다해도 우리 종사원들

의 남아 있는 미래를 본다면 정말 종사원의 고용을 지키고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확실한 사외이사를 고르고 골라 이사회로 보내야 하는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다.

현재 노조는 약 3.5% 주주의결권을 확보하여 사외이사 추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5.7%의 우리사주를 직원들에게 매각한적이 있고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다면 엄청난 수의 주식이 직원에게 있지만 (과거 대우의 김우중씨가 대우전자의 5%남짓한 주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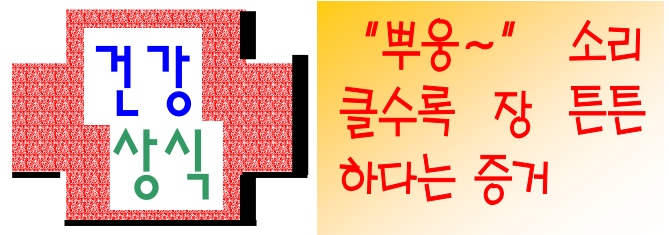
대우그룹을 통치한 량에 비하면) 그것을 이용하지는 못한다.

보다 중요한건 노조가 하는 사업에 우리 조합원이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추진하며 결과는 어떠한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리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향상시켜 달라고 매달 기본급의 1%를 조합비로 내는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내가 KT에 다니지 않는다면 (관계 되지 않는다면) 다들 이려지 않겠지요?

그래도 노조가 있기에 이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조" 꼭 필요 합니다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출처 : 어린이동아 2004-12-26 ]



방귀는 우리 몸속에 있는 공기가 항문을 통해 빠져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루 평균 13번 정도 방귀를 뀌다.

이렇게 하루 동안 나온 방귀의 양을 다 합치면 작은 우유 한 팩 정도 분량인 200mL부터 많게는 1L짜리 큰 우유팩에 꼭 찰 만큼도 될 수 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가 잘 안되면 이 음식물들이 뱃속에서 오래 머문다. 음식물이 머무르는 곳을 우리는 ‘장’ 이라고 부른다.

장 속에는 몸에 나쁘지 않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 이 세균에 의해서 음식이 발효가 되면서 수소라고 하는 가스가 생긴다.

이 가스가 항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오면 방귀가 된다. 또 우리가 밥을 먹거나 껌을 씹을 때 들이마신 공기가 몸속을 통과해 방귀로 나오기도 한다.

이때 그 음식물 속에 유황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섞여 있으면 냄새가 독한 방귀가 되는 것이고, 장이 건강해 밀어내는 힘이 강하면 소리도 그만큼 씩씩하게 나오게 된다.

이처럼 방귀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중 하나이다.

그래도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귀를 덜 꺾고 싶다면 껌이나 사탕, 탄산음료 등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게 하는 음식을 피해야 한다. 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밀가루 음식이나 고기류, 우유, 바나나 등은 조금씩만 먹는 것이 좋다.

주말에 떠나는  
문화체험

얼음낚시축제  
-강태공들 유혹

[출처 : 경향신문 2004-12-16]



눈의 고장인 강원 곳곳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겨울축제가 마련돼 관광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내년 2월까지 이어져 미리 정보를 챙겨두면 즐거운 주말여행을 즐길 수 있다.

◇산천어 축제=화천군은 내년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봉어섬 일대에서 ‘산천어축제’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는 산천어 얼음낚시터, 얼음축구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이 들어서 인간컬링 등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또 먹거리 장터를 찾을 경우 산천어 구이를 비롯, 산천어버거, 산천어식해, 산뱃나무훈제 산천어 요리 등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를 즐길 수 있다.

◇빙어축제=인제군은 내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남면 부평리 소양호 일대에서 ‘제8회 인제 빙어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는 전통썰매, 설피, 발구를 비롯, 전국 얼음축구대회 등 9개분야 68개 종목의 각종 체험행사가 열린다.

또 선조의 산촌생활을 접할 수 있는 산촌문화 체험관이 설치되고 다양한 빙어 요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 2월에는 고성에서 명태축제가, 설악산으로 향하는 길목인 인제 용대리에서 황태축제가 각각 개최될 예정이어서 미식가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있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